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과 직무효율성 간의 상관연구

정 현 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도: 최정훈 교수>

= 차 래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 B. 연구의 목적
- C. 문제의 제시
- D. 연구의 가설
- E. 용어의 정의
- F. 연구의 한계

II. 문헌 연구

- A. 주관적 지각의 이론적 배경
- B. 관련된 연구의 문헌 조사

III. 연구 절차

- A. 연구의 대상
- B. 연구의 도구
- C. 자료처리의 방법

IV. 조사 결과

V. 논의 및 결론

- A. 논의
- B. 요약 및 결론
- C.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전문적 간호교육이 발전되면서 간호원의 적성 또는 효율적인 간호 활동의 방안등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

만 주목할만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의 연구는 병원사회 내에서 간호활동에 임하는 간호원의 역할, 기능 또는 역할지각을 이해하는 일이 간호교육과 간호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Getzeles의 연구에 의하면¹⁾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역할지각이 다른 사람의 지각과 일치하거나 합의를 불때 각 구성원은 만족을 느끼며 서로 어긋날 때 불만을 느낀다고 하며, Jenkins는²⁾ 개인의 효율적인 직무수행 활동은 개인의 역할기대에 자기의 역할지각이 일치를 못할때 오히려 저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간호원들이 자기의 직무에 대한 지각이 다른 간호원들의 지각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어긋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 즉 병원사회내의 의사와 환자 또는 간호원, 간호행정가들에 대한 간호원 자신의 지각 또는 태도는 다른 간호원의 그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음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간호원 자신 즉 자아에 대한 지각도 다른 간호원과 같을 수도 있겠고 다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병원사회 내에서 근무하고,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연령과 경력의 간호원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의 효율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간호원의 행동을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서 해석하기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지각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란 행동하는자의 즉각적

1) J.W. Getzeles: Administration as a Social Process, (Chicago: Univ. of Chicago, 1958), pp. 150-165.

2) D.H. Jenkins: Interpersonal Perception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ashington, D.C.: N.E.A. 1958), pp. 49-87.

3) 최정훈: "지각항성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연세논총 제9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p.88.

인 자아,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 즉 간호원들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간호학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요인이지만, 만일 그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없다거나 또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현재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간호학에 지식이 뛰어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효율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주관적 지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문적 직업인의 효율성을 크게 좌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예측과 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주관적 지각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이 지배된다는 지각심리학의 입장에 서서 간호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각의 향성을 알아보고, 이것이 전문적 직업인인 간호원들에게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원의 주관적인 지각과 전문적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문적 간호직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앞으로의 효율성을 예언하는데 도움을 주려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과 근무성적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힌다.
- 2)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이 간호원의 교육배경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규명한다.
- 3)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이 간호원의 연령 및 경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힌다.
- 4) 간호원의 타인 및 자아,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주관적 지각이 간호원의 교육, 연령, 경력, 배경 그리고 직무효율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힌다.

C. 문제의 제시

전술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하위 연구 문제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근무성적과 관계가 있는가, 또는 무관한가? 지각향성 검사의 결과에 따라 자기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2)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학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 무관한가? 간호교육의 효과가 자기 직무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3)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직무경력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무관한가? 경력을 많이 쌓으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지각향성도 민감한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의문에 입각하여 제기된 문제이다.

D. 연구의 가설

연구의 목적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병원에서의 근무성적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최정훈과 Getzeles의 연구에 의하여 지지되며, 인간행동의 지각주의적 접근에 의한 기본적인 가설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간호원의 학력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이 학력의 영향을 쉽게 받으리라는 입장에서 예상되는 가설이다. 왜냐하면 학력의 차이는 인간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3)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간호원의 직무경력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간호원의 자기, 타인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주관적 지각은 임상에서 간호원으로서의 경력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바람직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정된다.

4)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간호원의 연령계층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주관적 지각은 연령계층에 따라 당연히 다르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간호원의 경우에도 연령계층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E. 용어의 정의

1) **지각** :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meaning)로서 주위의 상황이 행동하는 당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는 주관적 인식을 뜻한다⁴⁾.

2) **지각향성검사** :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지각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추리로서 알아보는 과정에 쓸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있어야 한다. 즉 주관적인 지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도구가 곧 이 검사이다.

3) **직무 효율성** : 간호원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훌륭한 간호원이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적 의미로 사용한다.

4) **간호원** : 본 연구에서 간호원이란 그 연구 대상자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Y대학 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4년제 간호대학과 3년제 간호학교 출신의 간호원을 말한다.

F.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간호원의 직무효율성에 미치는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에 의한 연구이므로 직무효율성을 객관적인 기준인 관찰에 의한 행동평가는 배제되었다.

2)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내 S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에 한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

3)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이 직무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관계규명에 간호원의 근무성적, 학력, 경력, 연령의 요인만을 고려하였으며 그밖의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II. 문 험 연 구

A. 주관적 지각의 이론적 배경

1. **인간행동 이해의 지각주의적 접근** : 인간의 행동은 최소한 두가지 측면에서 관찰할수 있다. 하나는 외부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사람 자체의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관찰하게 되며 또한 개인과 그 상황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하게 되고, 후자의 입장은 인간행동의 관찰을 행위자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입장이다. 최정훈은⁵⁾ 전자의 입장을 “객관적” 후자의 입장은 “지각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각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란 행동하는자의 즉각적인 자아 및 타인, 그리고 그가 살고있는 세계에 대한 지각의 합수, 즉 $B = f(p)$ (B 는 행동, p 는 지각)라고 이해하고 있다⁶⁾. Combs 와 Snygg 는⁷⁾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가 행동하는 생체의 지각의 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인간은 타인이 보는 것과 똑같은 사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때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의 접근방법이 최근에 시도되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⁸⁾.

2. **전문직 수행의 효율성 기준** : Combs 는 사회에서 남을 돋는 여려 전문직 직업인들의 효율성 여부를 갈라주는 공통된 기준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서, 전문직 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간에 효율적인 사람은 비슷한 유형에 속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역시 직업에 무관하게 유사한 양

4) 최정훈 : *지각심리학*, (서울 : 을유문화사, 1972), p. 29.

5) 최정훈 : *지각심리학*, (서울 : 을유문화사, 1972), p. 27.

6) Ibid., p. 29.

7) A.W. Combs and D. Snygg: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per and Brothers, 1959), p. 20.

8) 최정훈 : op. cit., pp. 22-26.

9) Ibid., pp. 69-70.

10) F.W. Hart: *Teachers and Teaching*, (New York: Macmillan, 1934), pp. 131-132.

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Hart에 의하면¹⁰⁾ 직무수행의 정도가 훌륭한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는 지식정도의 차이가 없고 비슷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Page 역시¹¹⁾ 전문직 수행의 효율성이란 실제로 하는 일의 방법이나 기술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문직업에 대한 지식 정도나 방법으로 그들의 효율성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된 연구는 전문직 직업인들은 “순간적 반응에 따라서 행동한다”¹²⁾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였고, 효율적인 전문직 직업인들은 그들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늘 타인의 입장에 서서 행동한다”¹³⁾는 사실과, 그리고 “일의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자기자신과 타인과 궁극적인 목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¹⁴⁾는 사실도 함께 밝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기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지각이 전문직 수행의 효율성을 구분하여 주는 기준이 된다”¹⁵⁾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수한 전문인의 자아에 관한 지각은 대개의 경우 적극적이고 낙관적이며, 진정한 자아 수용의 태도가 있으며, 우수한 전문인의 자아지각은 대부분의 전전한 인간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¹⁶⁾고 한다. 즉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Combs는 효율성이 높은 자와 자아에 관한 지각과의 상호관계 연구에서 효율성이 높은 자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동일시하여 자신을 적절한 인간, 믿을만한 인간, 타인에게 요구되는 인간, 그리고 가치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¹⁷⁾. 또한 Combs는 효율성이 높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지각적 차이의 연구에서 효율성이 높은 자는,

a) 그의 행동기준으로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

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 b) 사물이나 사건 자체보다도 인간과 그의 반응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 c)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이며 지각적 경험을 더 중요시하여,
- d) 인간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사고, 감정, 신념 및 이해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현재나 과거에 작용한 외부의 압력이나 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 e) 타인을 신임하며,
- f) 타인을 친절하다고 보며,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라거나 적개심을 품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 g) 타인을 가치있는 존재라고 보며,
- h) 타인이 내부로부터 발전해 나오며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틀에 지워진 것이 아니라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 타인을 보는 각각 외에 자신의 전문직에 대하여 어떠한 지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보는 지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였다¹⁸⁾.

3. 지각 향성(Perceptual orientation) : 인간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완전히 그가 갖고 있는 지각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¹⁹⁾. 또한 전문인의 행동이 경우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이며 훌륭한 전문인이 갖는 전형적인 지각의 특성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인 전문인에게는 반드시 어떤 유사한 지각향성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직접 관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에 있어서는 추리(inference)라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지각을 추리하려는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11) E.P. Page: "Teacher Comments and Students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XLIX, 1958, pp. 173-181.

12) A.W. Combs: "The Human Aspect of Administration," Educational Leadership, 1970, 28(2) p. 197.

13) Ibid., p. 198.

14) Ibid., p. 199.

15) 최정훈 : op. cit., p. 71.

16) Ibid., p. 72.

17) A.W. Combs: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eachers, (Boston: Allyn and Bacon, 1965), pp. 70-71.

18) Ibid., pp. 75-76.

19) 최정훈 : "지각 향성 검사 예비 검사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 9집,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p. 71.

자기자신을 도구로 삼고 피연구자의 독특한 지각현상을 결정지어 그들의 참 행동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²⁰⁾. Combs 와 Soper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추리에 의한 자료와 객관적인 의적기준과의 사이에 매우 의의가 있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²¹⁾.

B. 관련된 연구의 문헌 조사

Lynch²²⁾는 지각적인 추리를 이용하여 교수수행과의 관계 연구에서 지각적인 추리가 교수수행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측정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McClendon²³⁾은 학교 분위기 연구에 지각적인 방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적극적으로 검증되어 지각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Ramsey²⁴⁾는 지각적인 접근방법이 행동과학에 있어서 보다 예언적인 결과를 보인 것을 지적하였다. Combs 와 Soper²⁵⁾는 상담자의 주관적 지각과 그들의 효율성간의 의미 있는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로서 훌륭한 상담자와 훌륭하지 못한 상담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일반영역에 대한 지각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ourson²⁶⁾은 전문직업인의 자기직업에 대한 내용성과 지각향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Benton²⁷⁾은 목사 상담자의 역할에 있어서 성공회 목사들의 효율성에 대한 지각을 알아 보았다. 그는 성공회 감독에게 자기의 판찰 구역에 있는 목사에게 그들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이로서 Benton²⁸⁾은 목사인 상담자의 효율성과 비효율성간에는 지각적인 추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Gooding²⁹⁾은 12 가지 지각의 차원에 따라서 판찰과 면접으로 얻은 국민학교 교사의 지각을 학교장과 장학관의 평정에 비교해 보았는데 효율적인 교사는 판찰의 결과에서 얻은 지각향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정훈³⁰⁾은 Colorado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향성과 교수 효율성간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안덕자³¹⁾는 연구원들의 효율성과 그들의 지각향성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정숙³²⁾은 군간호원 3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근무성적과 지각향성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방용자³³⁾는 간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훌륭한 간호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주관적 지각은 행정가의 기대에 가장 가깝고 또한 의사의 기대보다는 환자의 기대에 더 가깝다고 보고하고 있다. Kron³⁴⁾의 간호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원 집단내에서 훌륭하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본인들에게 자기의 태도에 관한 평가에서 나타난 주관적 지각과 이들에 대한 간호보조원들의 평가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III. 연구 절차

A.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S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집하였다.

20) Ibid., p. 71.

21) 안덕자 : "지각향성 및 개념형성단계로 측정한 효율성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70), p. 8.

22) W.W. Lynch, "Person Perception: Lt's Role in Teaching,"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Bulletin, 1961, 37 : pp. 1-37.

23) P.E. McClendon: "Teacher Perception and Working Climate," Educational Leadership, 1962, 20 : pp. 104-109.

24) C.P. Ramsey: "Leadership Preparation," Educational Leadership, 1962, 20 : pp. 151-154.

25) 안덕자 : op. cit., p. 28.

26) 최정훈 : op. cit. p.86.

27) Ibid.

28) Ibid.

29) Ibid.

30) 안덕자, op. cit., pp. 39-4.

31) 정숙 : "군방호원의 지각향성이 근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pp. 29-32.

32) 방용자 : "간호원의 역할 인식과 환자, 의사, 행정가의 역할 기대와의 관계," 논문집, (서울 : 카톨릭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p. 356.

33) T. Kron, Nursing Team Leadership, (New York: Saunders 1966), p. 50.

출신학교별		연령별			경력별		
4년제	3년제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3년미만	3년이상
인원수	50	50	66	22	12	40	40
총계	100		100		100		

조사는 1972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에 걸쳐 실시되었다.

B. 연구의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최정훈 제작의 표준화된 <지각향성검사>와 서울특별시 소재 S종합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호원 근무평정척>으로서 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각향성검사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a. 신뢰도 계수: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0.88로 보고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b. 문항 구성: 전부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의 평소 생각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Usher의 12 가지 지각의 차원에 입각하여 각 차원마다 각각 5개씩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타인에 관한 지각을 표현한 20개의 문항 (1~20 번까지)과 자아에 관한 지각을 표현한 20개의 문항 (21~40 번까지), 그리고 자기 직업에 관한 지각을 표현한 20개의 문항 (41~60번까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차원마다의 5개 문항은 긍정적인 것 3개와 부정적인 것 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이 5단계 척도에 자신의 평상시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2. 간호원의 근무성적 평정척

본 평정척은 S종합병원의 간호원 직무효율성 즉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수간호원들이 개개의 간호원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4 가지 평정항목을 설정하고 각 평정 항목마다 수개의 세목으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5단계 척도로서 평정을 하게했다. 4 가지 평정항목은 지도력, 대인 관계, 정신면의 발전상태, 지식 및 기술등이며 평정척의 신뢰도 계수는 반분법 신뢰도 산출법에 의하여 0.74가 나왔다.

C. 자료처리의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원의 근무성적별, 혼직경력별, 그리고 연령별에 따른 지각향성점수의 차의 유의도를 χ^2 검증을 통해 밝혔다. 검증의 결과有意性 있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유관계수(contingency coefficient)를 구하여 상관의 정도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지각향성 점수를 3요인 즉 타인에 대한 지각, 자기에 대한 지각,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지각별로 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IV. 조사 결과

A. 지각향성과 근무성적과의 관계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근무성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증의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지각향성과 근무성적과의 관계

지각향성 점수	상 (240점 이상)	중 (239— 210)	하 (209점 이하)	계
상(17.0—19.9)	4	13	2	19
중(15.5—16.9)	13	36	15	64
하(12.0—15.4)	3	11	3	17
계	20	60	20	100

$$d.f.=4, \chi^2=2.97, p>0.05.$$

표 1에 의하면 간호원의 지각향성점수와 근무성적 간에는 의의있는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근무성적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5% 유의수준에서 부정하고 있다.

B. 지각향성과 학력과의 관계

간호원의 지각향성점수와 간호원의 학력 간의 관계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지각향성과 학력과의 관계

지각향성점수 학력	상 (240 이상)	중 (239— 210)	하 (209 이하)	계
4년제 대학	14	34	2	50
3년제 간호대학	6	26	18	50
계	20	60	20	100

$$d.f.=2, \chi^2=17.06, p<0.001, c=0.38, 2\times 3 \text{극 대치 } c=0.707.$$

표 2에 의하면 간호원의 지각향성 점수와 간호원의 학력 간에는 매우 의의있는 차가 나타났다. 즉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학력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0.1% 유의수준에서 긍정하고 있다. 상관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C. 지각향성과 직무경력과의 관계

간호원의 지각향성 점수와 간호원의 직무경력 간의 관계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지각향성과 경력과의 관계

지각향성 점수 경 력	상 (240 이상)	중 (239— 210)	하 (209 이하)	계
상 (3년 미만)	6	24	10	40
중 (3년 이상)	9	22	9	40
하 (10년 이상)	5	14	1	20
계	20	60	20	100

$$d.f.=4. \quad x^2=4.24. \quad p>0.05.$$

표 3에 의하면 간호원의 지각향성 점수와 간호 직무경력 간에는 의의있는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직무경력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5% 유의수준에서 부정하고 있다.

D. 지각향성과 연령과의 관계

간호원의 지각향성 점수와 간호원의 연령계층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지각향성과 연령과의 관계

지각향성 점수 연령계층	상 (240 이상)	중 (239— 210)	하 (209 이하)	계
상 (30세 미만)	11	40	15	66
중 (30세 이상) (40세 미만)	6	14	2	22
하 (40세 이상)	3	6	3	12
계	20	60	20	100

$$d.f.4. \quad x^2=3.024. \quad p>0.05.$$

표 4에 의하면 간호원의 지각향성 점수와 간호원의 연령계층 간에는 의의있는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간호원의 연령계층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5% 유의수준에서 부정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위의 결과에서 밝혀진 몇가지 사실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근무성적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요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근무성적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성적도 좋다는 점은 근무성적이 뛰어나 훌륭하다고 지목된 간호원이 자기 자신을 보는 지각에 있어서 비교적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수용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지각향성과 간호원의 학력간에는 의의 있는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 요인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및 자기 직업에 대한 지각부 간호원의 학력간에도 의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전문직 간호원이 되기 위해 4년제 간호대학에서 수련을 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간호원 사이에 전문직업의 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지각향성과 간호원의 직무경력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직무경력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어 경력이 많은 간호원일수록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기를 유가치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넷째,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연령간에는 의의 있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하위요인인 타인에 대한 지각과 연령계층간에도 의의있는 상관이 없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간호원의 연령의 차이가 타인에 대한 신뢰와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 직업을 지각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B.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인본주의 심리학이 발전시켜 놓은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간호원의 주관적 직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함으로써 간호 직무의 효율성을 지각향성에 비추어 판단

할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였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1)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근무성적과 관계가 있는가, 무관한가?

2)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학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 무관한가?

3)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직무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무관한가?

4) 간호원의 지각향성은 간호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또는 무관한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S 종합병원의 4년제 간호대학 출신 50명과 3년제 간호학교 출신 간호원 50명 도합 100명을 표집하여 최정훈 제작의 지각향성 표준화검사로서 간호원의 지각향성을 측정하고 균무평점척에 의한 간호원의 근무성적을 조사하였다.

위의 자료로서 이 연구가 검증하려고 한 가설과 그 검증의 방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근무성적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간호원의 지각향성점수를 상, 중, 하로 세분하고 근무성적 역시 상, 중, 하로 나누어 χ^2 검정하였다. 그리고 χ^2 의 결과 의의있는 차가 있다고 밝혀지면 상관의 정도를 더 알아보기 위해 유관계수 (c)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는 5% 수준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지각향성점수의 하위요인인 자기자신에 대한 지각과 근무성적 간에는 5% 수준에서 긍정되었다.

가설 2: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학력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χ^2 검정의 결과로 0.1% 수준에서 긍정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타인에 대한 지각과 학력간에는 5% 수준에서 부정되었다.

가설 3: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직무경력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5% 수준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근무경력간에는 5% 수준에서 긍정되었다.

가설 4: 간호원의 긍정적인 지각과 연령계층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도 5% 수준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연령계층간에는 5% 수준에서 긍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근무성적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이 드러나지 않았다.

2.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학력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

3.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직무경력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이 드러나지 않았다.

4.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연령계층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이 드러나지 않았다.

5. 그러나 간호원의 지각향성과 하위요인 중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근무성적, 직무경력, 연령계층간에는 상관이 있다.

6. 간호원의 지각향성의 하위요인중 타인에 대한 지각과 학력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상관이 드러나지 않았다.

C. 앞으로의 과제

위의 결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앞으로의 몇 가지 과제를 찾아보게 되었다.

1. 간호원의 근무성적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원의 주관적 지각향성 검사와 근무성적의 자기평가간의 상관의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원에 대한 객관적 근무성적 평가와 주관적 자기 평가간의 상관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이상에서 드러난 과제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란수: 교육조사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6.
- 2) 방용자: 간호원의 역할 인식과 의사, 행정가의 역할, 기대와의 관계, 카톨릭 대학 석사논문, p. 356, 1970. 카톨릭 의학부 논문집, 제18집.
- 3) 안덕자: 지각향성 및 개념형성단계로 측정한 효율성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0.
- 4) 정숙: 군간호원의 지각향성이 균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 5) 최정훈: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1972.
- 6) 최정훈: "지각향성 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제 9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 7) 최정훈: "지각향성 검사 예비 검사령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 9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 1972.
- 8) Combs, A.W.: "The human aspect of administration," *Educational Leadership*, 28(2)pp. 197 -199, 1970.
 - 9) Combs, A.W.: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eacher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65.
 - 10) Combs, A.W., and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Rev. ed.),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9.
 - 11) Getzeles, J.W.: *Administration as a social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8.
 - 12) Hart, F.W.: *Teacher and teaching*, New York, Macmillan, 1934.
 - 13) Jenkins, D.H.: *Interpersonal perception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ashington D.C. N.E.A., 1958.
 - 14) Kron, T.: *Nursing team leadership*, New York, Saunders, 1966.
 - 15) Lynch, W.W.: "Person perception: its role in teaching,"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Bulletin*, 1961.
 - 16) McClendon, P.E.: "Teacher perception and working climate," *Educational Leadership*, 1962
 - 17) Page, E.P.: "Teacher comments and student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XLIX, 1958.
 - 18) Ramsey, C.P.: "Leadership preparation," *Educational Leadership*, 1962.

= Abstract =

A Correlation Study on Nurses' Subjective Perception and Their Effectiveness

Chung, Hyun Soo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 the view of humanistic psychology was attempted to seek the purpose of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working efficiency that measured by an observational working efficiency scale and their subjective perception.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Choy, Chung Hoon 1971) was administered to 100 nurses during the period of May to July 1972,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ir ratings by their supervising head nurses.

Educational background, ages, and their lengths of career were compared with their subjective perceptions.

All the relationships were calculated by the method of chi-squares and correlational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ubjective perceptions and their working ratings.
2.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ubjective perceptions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3.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ubjective perceptions and their lengths of career.
4.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ubjective perceptions and their ag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interpreted to the sampled research group of this study and are not to be extended to any other groups.